

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	2022.01.18.(화)
위원정수 : 5명	재적위원 : 5명

1. 일 시 : 2022.01.24.(월) 10:00

2. 장 소 : 총장실

3. 참 석

구 분	인원	성 명	비 고
참석인원	3명	김문기, 김봉한, 엄정아	간사 손명현 서기 임수현
불참인원	2명	이동현, 정영훈(외)	.

4. 안 건 : 임의퇴직기금 인출 후 임의특정목적기금(운영비) 재적립 후 인출 사용의 건

5. 회의내용

(손명현간사(이하 "간사")의 사회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김문기위원장(이하 "위원장")이 회의를 개최하고, 김봉한 위원이 기도 후 간사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)

- 엄정아 위원 : 부서에서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금액은 반드시 이번 회계안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한다. 자금이 없어서 줄여야하는데 지출하겠다고 했던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금만 커진다.
- 간사 : 이미 지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후 재조사하여 안내하였다.
- 위원장 : 2억 6천만원은 퇴직기금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것인가?
- 간사 : 그렇다.
- 김봉한 위원 : 2016년도 연장근무수당이 이번 회계 예산으로 포함되었다고 들었다.
- 간사 : 이미 1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연체이자분까지 해당회계에 반영해야한다.
- 엄정아 위원 : 결산서상에 미지급 명세서에 표기되어있어야 한다.
- 위원장 : 그래도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금액보단 줄어든 것 같다.
- 김봉한 위원 : 2억 6천만원이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기금을 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다.
- 간사 : 교직원 성과급은 50%만 반영한 상태이다.
- 김봉한 위원 : 금액이 어느정도인가?
- 간사 : 교원, 직원 모두 포함하면 2억 5천만원정도 된다.
- 위원장 : 성과급은 안주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. 이러한 상황을 이사회를 통해 이사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. 2억 6천만원은 임의퇴직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 재청하겠다.

(엄정아 위원의 동의와 김봉한 위원의 재청으로 임의퇴직기금 중 260,000천원을 인출하여

임의특정목적기금(운영비)로 재적립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결의하다.)

6. 폐 회

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김봉한 위원의 동의와 엄정아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10:35에 폐회하다.